

PCE 둔화에도 장기금리 상승 ·마이크론 실적 경계에 혼조세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 hyseong@ls-sec.co.kr

국채금리 부담 속 나스닥·기술주 제외하고 대체로 약세

- 미 증시는 DOW -0.86%, S&P500 -0.25%, NASDAQ +0.24% 혼조. 기술주만 상승, 필수소비재, 헬스케어, 산업재, 금융 등 약세
- PCE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타나며 초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, 장기물 국채금리 부담 확대 및 마감후 마이크론 실적발표 경계감에 빅테크 등 시총상위주 중심으로 장막판 매도물량 출회
- 관련해 바클레이즈는 미 10Y 국채금리가 5%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주식 위험프리미엄이 축소되었다 경고. 다만 4 분기 계절성과 중간선거 역학, 기업의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채권 대비 주식 비중확대 의견은 유지

PCE 예상 하회에도 10 월 인상확률 ↓, 장기물 부담은 여전

- 8 월 PCE가격지수 MoM+0.3% 전월·컨센 하회, YoY +3.4% 전월 동일·컨센 하회. 근원 PCE가격지수 MoM+0.2% 전월비 증가·컨센 하회, YoY +3.0% 전월 동일·컨센 하회. 지수구성요소 산정방식 변경에 의해 월간증가율 대비 연간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효과.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근원 PCE 예상 하회에 에너지·식품 외 인플레이 부담은 완화 기조로 해석. 8 월 실질개인소비는 MoM +0.6%로 전월(+0.1%) 대비 크게 개선
- CME FedWatch 10 월 인상확률은 38%대까지 하락. 그러나 GDP 지표 및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발표되면서 국채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 흐름, 장후반 주가 약세 주도. 30Y 5.638%(+4.4bp) 10Y 5.293%(+3.7bp) 2Y 4.887%(-0.2bp)
- 2Q GDP 성장률 확정치 QoQ 2.2%로 잠정치 대비 +0.7%p ↑. 9 월 ADP 민간고용 +9 만명 전월·컨센 상회

장마감 후 백악관의 한국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

- 백악관은 한국 대미투자 프로젝트 내용 공식 발표. 앞서 확정되었던 1 호 텍사스 엔시날 가스발전소 건설(\$223 억) 외에, 추후 협의 과제로 언급되던 알래스카 LNG 개발(\$540 억), 대형원전 8 기 건설(\$1,200 억)이 포함
- 다만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은 한국측과 합의 전 일방적 발표된 사안으로 향후 실질적 이행여부 및 최종 투자 집행규모 상 불확실성 잔존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 %)	내용
MU	마이크론	+0.0%	장 마감후 실적발표. 시간외 보합.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4분기 실적과 가이드نس 발표. 매출 \$54.23B(+379% YoY, 컨센 \$51.51B), EPS \$33.42(컨센 \$31.82)이며, DRAM 매출은 \$39.8B(+343% YoY)로 전체의 73% 차지. 1분기 가이드نس는 매출 \$60~63B, EPS \$37.15~39.15로 컨센서스 상회. 컨퍼런스콜에서 산제이 메로트라 CEO는 장기 전략적고객계약(SCA)이 기존16→26건으로 확대됐으며, 잔여계약가치(RPO)가 \$100B→\$150B로 증가했다 설명. 또한 '27년과 '28년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 심화를 강조
GOOG	알파벳	+1.0%	차세대 AI 모델 '제미니4 아르곤' 공개. 코딩·지식노동 벤치마크 18개 중 12개에서 단독 1 위. 초기에는 일부 사이버보안 파트너에 한정 제공, 추가 테스트 후 유료 구독자부터 확대 예정
META	메타	-1.8%	AI 데이터센터를 '실험시설'로 분류해 미 의회로부터 연구 세액공제를 받아왔다는 NYT 보도 속 약세. 해당 공제로 절감한 세액은 '23년 \$0.7B→'25년 \$3.9B로 확대. 앞서 워런 의원 등은 동사 포함 빅테크 4사에 AI 관련 세제혜택 자료를 10/11까지 제출하라고 요구
HPE	HPE	+3.9%	투자자의 날에서 네트워킹 사업 성장 전망을 상향하고 클라우드 기업 벌처(Vultr)로부터 \$1.2B 규모 AI 서버 수주를 발표하며 주가 상승
BA	보잉	-0.9%	전일 장 마감 후 미 해군 차세대 함재 전투기 F/A-XX 개발 계약(\$20B 이상) 수주 발표에 시간외 상승했으나, 정규장에서 상승분 반납하며 하락마감. 수주 경쟁사 노스롭그루먼(-4.2%)을 제치고 지난해 공군 F-47에 이어 2년 연속 대형 전투기 사업 수주
MRNA	모더나	-5.4%	씨티그룹의 투자의견 '중립'→'매도' 하향에 하락마감